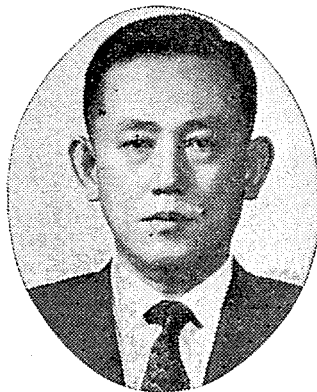


致辭

우리의 힘과 頭腦를 한데 모아



親愛하는 科學技術人 여러분!

그리고 內外貴賓 여러분!

오늘 國內外 우리 科學技術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綜合學術大會를 開催하게 된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는 바이며, 이 뜻깊은 자리에서 本人이 祝賀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크나큰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科學技術分野에서 많은 研鑽과 훌륭한 業績을 쌓으신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하며 特히 이 모임에 參加하기 위해 母國을 찾아오신 在外 科學技術人 여러분을 衷心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今年으로 다섯번째

최형섭장관 가 되는 이大會는 國內과 海外에 나가있는 科學技術人 相互間의 交流의 幅을 넓힘으로써 우리나라 科學技術發展을 爲하여 많은 寄與를 해 오고 있습니다.

周知하시다시피 오늘날 科學技術은 國家發展의 源泉이며 人類福祉向上의 關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年代로 부터 工業化를 主軸으로한 經濟開發을 推進하여 오면서 일찍부터 科學技術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이의 發展을 爲하여 國家의 次元에서 努力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他開發途上國家의 模範이 될수있는 國家科學技術政策機構를 整備하고 現代의인 研究所를 設立하였으며 科學技術人力養成體制를 갖추는 등 基盤構築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先進科學技術의 果敢한 吸收, 活用으로 技術革新을 展開할 수 있는 自體力量을 蓄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하여 80年代에는 우리도 先進工業國家의 水準에 到達할 것이며, 이를 爲하여 모든 國民이 땀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海外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經濟는 그간 많은 試練을 克服하고 急速한 發展을 持續하고 있습니다. 60年代의 工業化 初期에는 勞動集約的인 輸入代替產業과 輕工業中心의 輸出產業에 力點을 두었으나 그間 重化學工業 建設에 힘쓴 結果, 이제는 그 基盤이 確固하게 構築되었고 技術集約的인 工業製品이 輸出品의 大宗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農漁村地域에 있어서도 새마을 運動을 根幹으로한 近代化의 불길이 全國에 펼쳐 부지런하고 잘사는 農漁民像이 이룩되게 되었습니다.

勿論 先進國의 水準과 比較하기에는 아직도 微弱한 狀態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000弗 國民所得, 100億弗 輸出을 達成했다는 量的成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면 된다'는 國民的인 自信感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밖으로 이룩된 自信感이야말로 無限한 來日의 發展을 約束하는 힘인것을 우리는 다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룩한 經濟와 科學技術의 土台위에서 先進國으로 跳躍하기 위한 倍前의 努力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 놓인 經濟與件은 그렇게 順坦한 것은 아닙니다. 資源 民族主義의 대두로 말미암아 일어난 輸入 原資材와 에너지源確保의 問題를 克服하고 또한 世界的인 貿易保護主義의 추세에 겹쳐 치열해 가기만하는 國際競爭에 이겨 나가기 위하여는, 앞으로 우리 產業의 進路는 科學技術을 바탕으로 한 頭腦集約的이고 技術集約的이며 資源節約的인 高度 精密產業分野로

國家·社會發展 위해邁進하자

發展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科學技術의 役割은 絕對的인 것으로서 지금부터 國際水準級의 科學頭腦들을 大量 養成할 수 있는 人力開發體制를 갖추고 技能人力의 精銳化를 이룩하며, 나아가 政府와 大學, 產業界가 混然一體 參與하는 舉國的 技術開發體制를 갖추어 나갈 것이 要請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政府는 理工系大學과 大學院 教育을 크게 擴充할 計劃이며 大學을 中心으로 한 基礎科學研究活動도 振作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技能大學」을 中心으로 하여 技能人力과 產業戰士의 精銳化를 이룩하고 產業界의 技術開發을 促進하여 企業이 技術革新의 主役이 되게 하는 同時에 政府는 國策의 長期課題라 할 수 있는 基幹的인 複合產業技術과 資源, 에너지, 環境等の 大型技術의 開發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研究開發投資를 大幅擴大하여 지금의 GNP의 0.6%의 研究投資를 81년까지 1.5%, 86년까지 2%線으로 擴大함으로써 80年代 後半에는 名實 共히 先進國型 科學技術開發活動을 展開할 計劃입니다.

한나라 科學技術의 發展은 政府와 大學, 産界業, 科學技術界 그리고 모든 國民이 呼應하고 參與할 때 힘차게 展開될 수 있는 것입니다.

祖國近代化의 앞찬 結實을 이룩하고 科學韓國의 建設을 爲한 우리들 科學技術人의 使命은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國內外 科學技術人 여러분!

國家發展에 있어서 科學技術이 占하는 重要性은 아무리 強調되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點 우리 科學技術人들은 恒常 矜持와 自負로 삼고 우리의 힘과 頭腦를 한데 모아 國家·社會의 發展을 爲해 邁進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大會期間中 여러분이 平素에 쌓아오신 專門分野의 研究發表 및 學術交流는 물론이려니와 産業施設등의 視察을 通하여 날로 새로워 지고 있는 祖國의 참모습을 두루 살피셔서 科學立國 技術自立을 爲하여 現時點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되새기는 契機로 삼아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大會를 主催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및 在美韓國科學技術者協會 任職員 一同의 勞苦에 深甚한 敬意를 表하며 또한 本 學術大會를 마련함에 있어 아낌없는 後援을 하여주신 서울大學校를 비롯한 關係機關 및 經濟團體 여러분에게 깊은 感謝를 드리는 同時에 本 學術大會에 參席하기 爲하여 멀리서 歸國하신 在美 科學技術者와 家族 여러분에게 거듭 歡迎의 人事를 드리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978. 7. 10

科學技術處長官 崔 亨 燮